

세계종교인 "한반도 평화 노력지지"

세계종교인평화회의, 독일서 열려

전 세계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종교계의 활동을 지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린다우서 열린 제10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KCRP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16명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에는 종교자유, 인권, 생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됐으며, 인류공동선에 종교인이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로힝야 난민, 남수단 내전 등 분쟁 현안 당사국 종교인들이 대화를 나누며 실효성 있는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일정에 따라 진행된 아시아지역회의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가 전 지구적 평화의 초석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KCRP 대표단은 향후 남북화해에 더욱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진실한 불자로 거듭나길"

정읍 내장사, 기해년 수계법회 봉행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정읍불교대학 재학생과 운주암, 보림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해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8월 24일 수계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전계사 도완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도완 스님과 운주암 주지 성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105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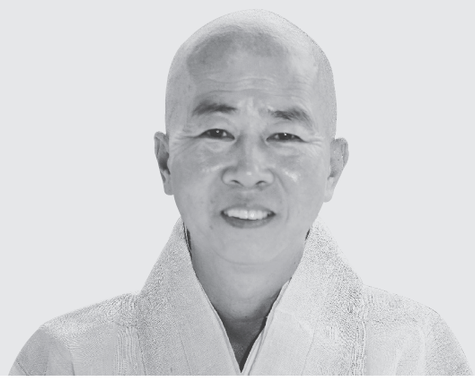
도완 스님은 박수라(법명 상경) 불자 등 수계불자들에게 법명이 적힌 계첩과 기념합장주를 수여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성실한 삶, 청정한 행, 진실한 언어, 맑은 정신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 내장사는 내장사 전통 누각인 정혜루를 일반에 개방하고 탑방객과 등산객들에게 자연 숙성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 위한 삶이 나 자신 위한 삶"

Interview

이웃을생각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김해서 이웃 위한 일일찻집 운영
수익금 장학금 및 성금으로 사용
군포교 · 해외구호에도 자비손길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군인, 독거어르신, 학생들 모두 이웃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이웃을생각하는모임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정진할 것입니다."

김해 지역에서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웃을생각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의 말이다. 지난 8월 28일 이웃을생각하는모임(회장 혜진 · 이하 이생모)은 김해에 위치한 카페 달리아에서 이웃돕기 일일찻집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생모는 일일찻집에서 나오는 판매 수익금을 지역 내 학생 2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김해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일일찻집은 5회를 맞았으며 매년 불자들의 나눔을 위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혜진 스님은 "일일찻집은 나눔을 위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며 "이생모 소속 사찰 스님들이 나눔에 앞장서며 모자라는 대부분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자들도 함께 보시 바라밀 공덕을 쌓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생모는 일일찻집을 통해 1년 동안 나눔활동을 구체적으로 불자들에게 소개하며 앞으로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이생모는 그동안 군부대 복지 후원 및 수계법회를 통해 군포교에 앞장서왔으며,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또 청소년 포교를 위한 캠프 개최, 결손 아동 돕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 해외 구호 사업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왔다.

혜진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고 묵묵하게 후원에 동참해 지금까지 활동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모든 생명은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세상은 각자의 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이웃을생각하는모임은 존재합니다."

이생모는 2012년 2월 김해 지역 사찰들이 협력해 창립했다. 창립 후 김해시 19개 초등학교 학생 8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군부대 후원 및 포교를 이어갔다. 군법당 낙성 및 수계법회, 장학금 지급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캄보디아 초등학교 후원 사업으로 우물파기 및 교복 지원으로 해외구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소속 사찰은 △구천암 △금강사 △미타암 △부다정사 △보현사 △은하사 △여여정사 △원명사 △영구암 △영강사 △장유사 △한마음선원 중부경남 지원이다.

혜진 스님은 앞으로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활동을 넓혀가며 해외구호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싯다르타, 오래 공연될 작품"

9월 개봉 뮤지컬 '싯다르타'
총괄한 김면수 대표프로듀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대형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작사인 엠에스엠시 김면수 대표프로듀서<사진>는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뮤지컬 싯다르타의 불교적 콘텐츠로서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에는 해당 종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왜 2600년 불교, 1700년 한국불교에는 오늘날에 필요한 대표 콘텐츠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뮤지컬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싯다르타'는 뮤지컬이라는 공연 작품이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 불교에 꼭 필요한 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급 뮤지컬 배우 25명과 스텝들이 지난 석 달 동안 한마음으로 준비한 뮤지컬 싯다르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열연과 음악, 무대, 안무 등 감동의 뮤지컬이 될 것이며, 불교 예술 작품의 새로운 전범이 되기에 충분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이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후원하는 뮤지컬 싯다르타는 부처님의 생애를 3개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린다.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았던 19세의 그 날, 출가를 결심하고 궁을 나섰던 29세의 그 날, 그리고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 날이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창작 뮤지컬이다. 제작사인 엠에스엠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싯다르타'의 지방 순회공연과 중국, 대만 등 해외공연도 추진 중이다.

김면수 대표프로듀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번 공연을 시작했다. 이유는 싯다르타가 이번 공연에서 끝나는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연될 작품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공연인 서울 공연이 중요하다. 이번 공연이 추후 오랫동안 이어질 공연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뮤지컬 싯다르타의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이다. 스님, 불자, 단체, 청소년 등 할인관람도 가능하다. 1661-4191. **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시민에게 할인

금산사, 김제시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조계종 제17교구 김제 금산사는 8월 29일 김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제시민의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김제시와 체결했다. 이 자리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김제시민들의 정신수양과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 금산사에서 불교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찰가족 위로한 불교전통문화

부산남부경찰서 경승단… 경찰가족 템플스테이



부산남부경찰서 경승단(경승실장 지원)은 8월 24~25일 문수사 전법회관에서 경찰 및 불자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일제강점기역사관 관람, 발우공양, 108배, 참선, 수계식 등을 체험했다. 템플스테이에는 경승실장 지원 스님과 경승 호명 스님을 비롯해 남부경찰서 이성우 경감 및 경찰가족 30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불교, 생명 수호 위해 거리로

제3회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부산 만들기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8월 25일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광장에서 '제3회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과 자살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또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교통안전수칙이 적힌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개강일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강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6개월 과정
교육내용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수강자격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강료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010-3867-8419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육임 수강생 모집

지금까지의 육임과 다른
새로운 육임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생 모집
교재 e-book
문의 02)3668-9890, 9871
수강료 50만원
www.dongbang.ac.kr

특별 이벤트
공념학당 6개월 수강 + e-book (30만원) + 동방대학 수강
일백만원 (대할인 수강생 모집 중)

공념학당 | Tel 02-793-7333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내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